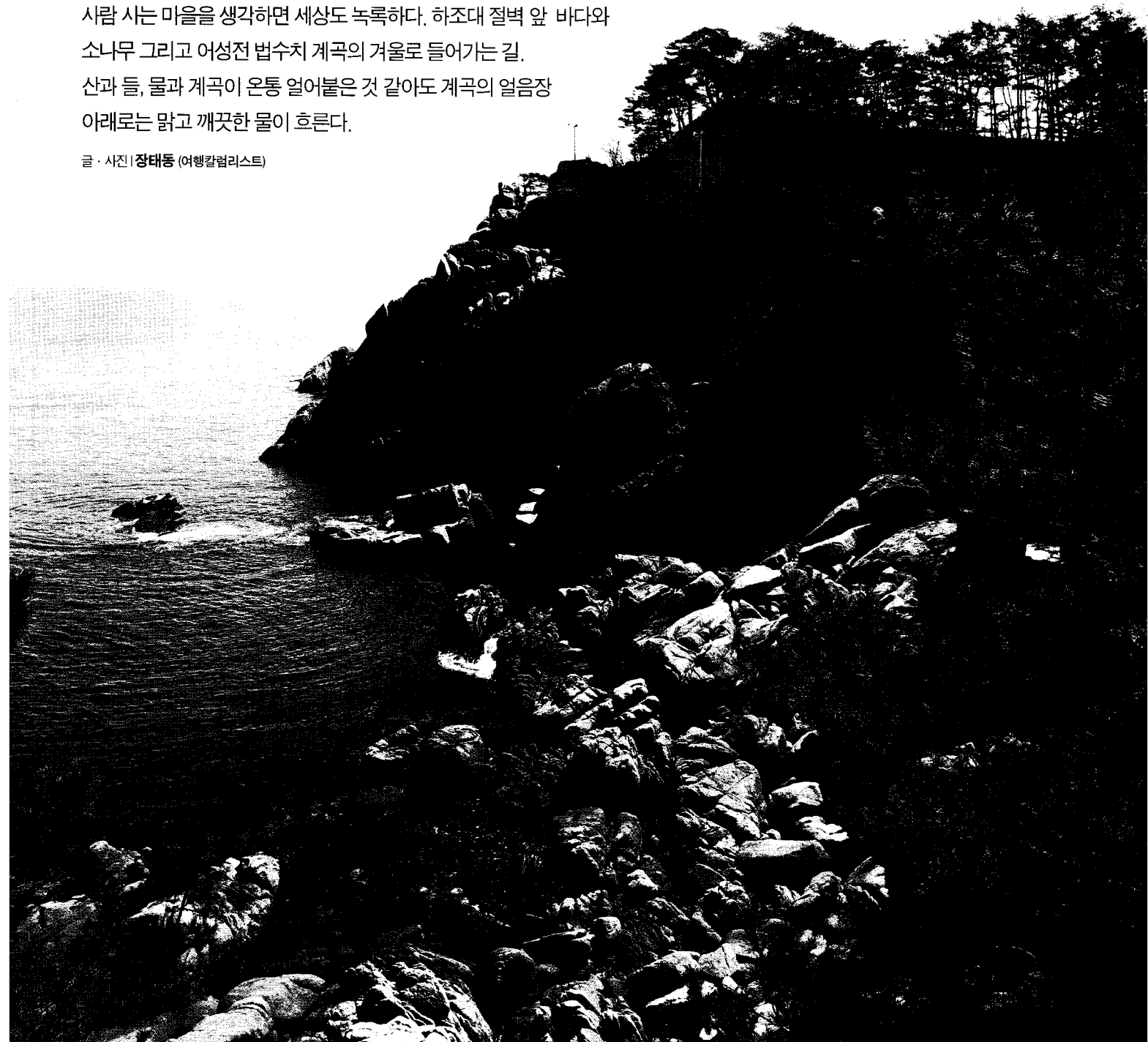


다시 겨울 바다에 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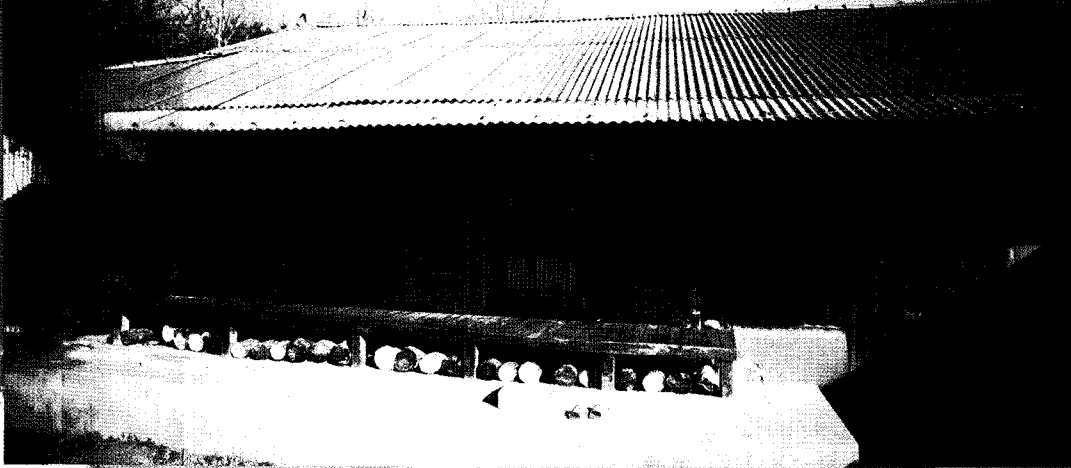
강원도 양양 하조대와 어성전 범수치 계곡

기다림의 끝은 무엇일까? 긴 세월 믿고 의지한 마음마저 얼어버리게 둔다면 정말로 지독한 눈보라 얼음비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굴뚝 연기 나는 사람 사는 마을을 생각하면 세상도 녹록하다. 하조대 절벽 앞 바다와 소나무 그리고 어성전 범수치 계곡의 겨울로 들어가는 길. 산과 들, 물과 계곡이 온통 얼어붙은 것 같아도 계곡의 얼음장 아래로는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른다.

글·사진 | 장태동 (여행칼럼리스트)



한옥은 아름답다. 양양 바닷가 작은 숲속에 한옥 한 채.
마당과 툇마루 흙벽에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추운 겨울의 저편 양자바른 곳에
웅크리고 있는 유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무엇인가 간절하게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면 기다림이
사람을 어떻게 미치게 만드는지 알 것이다. 그 대상이
자신을 위한 것이든 남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좀 더 넓은
세상을 위한 것이든 사람들은 기원의 길이만큼 허공에
마음 맡기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감고 고개 숙인다.

● 군불 때는 냄새 따라 추억에 잠기다

우리는 그 집에서 하룻밤 묵기로 했다. 숙박 허락을 받아 대충 짐을 풀고 아궁
이에 불을 지폈다. 잔솔가지에 종이를 넣고 밑불을 피웠다. 관솔을 넣으니 밑불
이 더 팔팔해진다. 관솔 타는 냄새가 부엌에 향긋하게 퍼진다. 그 위로 장작 몇
개를 올렸다. '타닥' 거리며 타들어 가는 장작에 부뚜막이 따듯해진다.

나무 타는 냄새에 연기 그을음 앓은 부엌과 세간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공
간에서 나는 어린 시절 고향의 부엌을 생각했다. 벽에 걸린 나무 선반 위에 찬
장이 놓여있고 그 아래 나뭇가지를 모아놓았다. 왕겨와 풍구가 구석에 놓여 있
다. 화력을 높이고 갑자기 큰 불을 피울 때면 왕겨를 넣고 풍구를 돌려 아궁이
에 인위적으로 공기를 집어넣어야 했다.

동상 걸린 발 아랑곳하지 않고 한겨울 들판에서 연 날리고 썰매타고 나무막대
기 깎아 만든 갈로 칼싸움을 하고 있으면 어느새 공기가 보랏빛으로 물들고 저
녁이 찾아온다. 순한 산능선을 닮은 초가지붕 위로 굴뚝 연기가 피어오르고 밥
짓는 냄새가 안개처럼 마을에 잔잔하게 고인다.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오면 제일 처음 가는 곳이 부엌이었다. 아궁이 불에 손 녹
이고 있으면 불장난이 하고 싶어 잔 나뭇가지 꺾어 아궁이에 넣는다. 그리고는
가마솥 뜨거운 물에 얼굴이며 손발을 씻고 나면 얼었던 몸이 녹으면서 젖은 종
이처럼 힘없이 흘러내리는 것 같다. 그럴 때면 가장 따듯한 아랫목에 얼굴만 내
민 채 이불을 덮고 몸을 웅크린다. 그러다가 새록 잠이 든다. 밥상 드는 소리
에 잠을 깨 어른 밥그릇에 가득 담긴 밥 한 그릇을 '뚝뚝' 비우고 다시 누워 진
짜 잠을 자곤 했다. 그렇게 일찍 잠든 날은 새벽에 눈이 떠진다. 하지만 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눈을 감고 부엌이 있는 벽 쪽에 귀를 댄다. 할머니와 엄마가 아
침을 준비하면서 나누는 말소리가 '웅웅' 거리며 들리는 것이다. 새벽 장작 타
는 향기와 부엌에서 들리는 할머니와 엄마의 말소리는 내 작은 가슴에 담기에



는 너무나 벅차고 행복한 것들이었다.

벽너머 부엌에는 할머니도 엄마도 없었지만 오랜만에
행복하게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 첫 목적지인 하조
대로 가기 전에 우리는 이름 없는 항구 마을로 접어들
어 아침을 먹기로 했다. 차를 달려 도착한 곳이 남해항
이었다. 작은 항구에 햇살이 퍼져 아늑했다. 바닷고기
로 끓인 해장국으로 속을 데웠다. 그물을 손질하고 정
리하는 어부들의 모습과 낮게 나는 갈매기 정박한 배.
그모든 것들을 안고 있는 항구의 풍경이 고즈넉했다.
파도는 '나를 알아 달라' 고 아우성이다. 바다가 일상
인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다. 내일 다
시 일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옆
을 아주 천천히 걸어가며 파도와 그물을 손질하는 사
람의 관계를 따져 본다. 파도는 계속 아우성이고 그 사
람은 그물코만 꿰고 있다. 말 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표정으로.

● 공기가 되거나 별빛이 되거나 아무 것도 아니거나

내 마음도 저럴 수 있을까. 하조대 절벽 앞 바다에 솟은 바위절벽 위의 소나무 하나. 언젠가 한 번은 저렇게 독한 마음 가지리라 생각도 해 봤지만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

나에게 혹은 다른 누구에게 향하는 기원의 기다림, 그리고 내 속에 독한 마음 하나 간직하지 못한 내 앞 겨울바다는 텅 비어있었다.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갈 둘째와 이제 막 밭을 부리기 시작하는 첫째 아이가 떠올랐다. 바다는 파랬고 소나무는 푸르렀다. 절벽은 아득했고 나는 아찔했다. 벼랑 근처의 쇠사슬은 '출입금지'의 준엄한 경계를 긋고 있었지만 금기의 선을 넘어 아슬아슬한 경계의 끝에 서보고 싶은 마음이 발길을 이끌었다. 현기증이 병처럼 나를 휘감아 도는 그 순간 나는 절벽에서 한 발 물러섰다. 아이들이 먼저 떠올랐다.

한 겨울 송곳처럼 바다에 박힌 바위절벽 위에 소나무 한 그루. 꽃처럼 피어난 그 소나무가 아이들 같았다. 푸른 솔잎은 아이들의 꾸밈없는 마음과 같았고, 제 멋대로 뻗은 가지는 어른들은 생각하지도 못한 아이들의 기발한 상상과 같았다. 어른들의 세상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순수의 이기가 제 멋대로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단지 그곳에서 내 마음은, 부모의 마음은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하는 무중력의 그것이어서 잠든 밤 아이들 꿈처럼 누구나 날아다니는 그런 세상의 공기가 되거나 별빛이 되거나 아니면 그 아무 것도 아니었으면 하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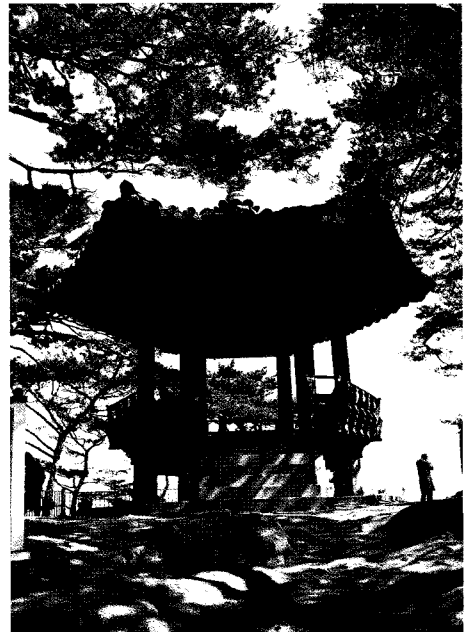
● 등대, 그 상징을 넘어

하조대는 하륜과 조준이라는 조선 개국공신의 성을 따서 붙인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다. 현재 하조대에 세워진 정자는 1998년에 해체 복원한 것으로 그 처음은 조선시대 정종 임금까지 거슬러 오른다.

정종은 이성계를 이은 조선의 두 번째 왕이다. 그는 이성계와 함께 조선의 문을 연 개국공신 하륜과 조준의 행적을 좇아 정자를 세웠던 것이다. 그 이후 500여년 역사에 몇 차례 중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손본 적이 없어 철거했다가 1940년 팔각정을 다시 세운 적이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국전쟁 때 사라지고 이후 다시 복원한 것이다. 하조대 정자각 앞에 숙종 때 새겨진 '하조대'라는 글자가 세월을 가늠하게 할 뿐이다.



솔숲을 내려와 하조대에서 바라보았던 하얀 등대가 있는 절벽 끝으로 발길을 옮겼다. 등대로 가는 길은 철골 구조물로 놓은 편안한 길 이기에 안전했다. 그러나 하조대 절벽 끝도 그렇거니와 등대가 있는 절벽의 돌출부위에도 금기의 쇠사슬이 길을 막았다.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곳임을 나타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를 따르지 못했다. 그 절벽 끝에서 바라보는 하조대 수직 단애의 아찔함이 멋진 풍광과 함께 마음에서 일어선다. 등대는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파란 하늘과 솔숲의 푸르름, 파란 바다와 저 먼 수평선이 있는 풍경은 하조대 등대 순백의 이미지와 함께 어울렸다. 바닷사람들의 생명 빛인 등대는 그 절벽 위에서는 더 이상 일상의 나침반이 아닌 꿈꾸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이상향 그 자체였다. 중년의 여행객들은 등대 계단에 앉아 안전하게 사진을 찍기도 했지만, 그곳에 있던 누구는 등대에 기대어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이상한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었다. 하조대 등대는 여행자들 앞에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었지만 이 순간 만큼은 감상어린 그리움이나 막연한 상징물이라기보다는 중년의 부부에게 신혼의 날들을 선물하는 매개체였다.



● 눈아래 얼음이 녹는 계곡을 바라보며

하조대에서 나와 법수치 가는 길을 선택했다. 언제나 그렇듯 겨울바다는 '마지막' 이자 '새로운 시작' 이었고 길 없는 길의 끝이자 '모색' 의 단초였다. 나는 그렇게 겨울 바다를 뒤에 두고 길을 떠났다. 목적지도 없었다. 눈 쌓인 길을 따라 흘러흘러 찾아든 곳이 어성전 지나 법수치였다. 길가 양상한 나무 숲 사이로 하얀 눈발이 산비탈을 이루고 있다. 그런 길가 가게 골목에서 연기가 난다. 더께 얇은 슬레이트 지붕이 그동안 겪어낸 수십 번의 겨울을 이야기 한다. 열릴 것 같지 않은 가게 문 안에 인기척이 없다. 골목 연기만 연신 하늘을 향해 피어오른다. 눈 위에 사람 발자국이 없다. 한낮인데도 오가는 사람 하나 없다. 바람이 불어 옷깃을 흔들 때 개 짖는 소리가 눈 쌓인 겨울 산을 울리며 '쿵쿵' 메아리친다. 법수치의 겨울은 그렇게 조용하다.

몇 해 전 내가 이는 누군가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 상황에서 한 말이 생각났다. "법수치에 인터넷이 될까? 거기가 여기다. 그 또한 이곳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휴대전화는 불통이었다. 그가 여기 있었어도 나는 찾지 못했을 것이다. 다만 그가 언젠가 한 번은 이 길을 걸어 저 눈 쌓인 겨울 계곡의 끝으로 들어갔을 것이라는 생각이 내 마음을 위로했다. 내가 그 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이 살면서 모범으로 삼고 싶은 사람을 몇 번은 만난다. 그가 그랬다. 어기적거리며 올라갔던 그 계곡길을 따라 나왔다.

눈이 마음대로 쌓였다. 온통 다 하얗다. 사람 냄새 전혀 없는 그 길에는 마른 나무의 숲과 얼어버린 계곡물, 새하얀 눈이 전부였다. 그런 풍경이 마음의 때를 씻어낸다. 더 이상 나는 어떤 이와 관계된 존재가 아니라 순전하게 나 혼자만의 생명체가 된다. 도시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할 일이었다. 나는 나에게 행복한 존재였을까. 순백의 계곡 앞에서 나는 아이처럼 '순수한 이기' 를 꿈꾸었다. ㉞



자가용 •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동해고속도로 들어서 현남IC로 나온다. 7번 국도 양양 방향으로 가다가 보면 남해, 인구 지나고 38선 휴게소 지나길 오른쪽으로 하조대 가는 길이 나온다.

• 어성전, 법수치 등은 하조대에서 나오면서 418번 도로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

대중교통 • 강남고속버스터미널 혹은 동서울버스터미널에서 양양까지 각각 하루 이십여 회의 버스가 다닌다.